

인간의 생활과 나무와의 관계

전 문 장/대구대학교 농과대학장

인간의 생활과 나무와의 관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바로 뒤로는 정상까지 걸어서 30-40분 정도 걸리는 조그만 야산이 있는데, 매일 이른 아침부터 집뒷길로 남녀노소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코저 산책내지는 아침운동을 하러 간다. 그들의 힘찬 발자욱 소리와 이미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야호” 함성에 본의 아니게 조기기상을 하게 된다.

또한 봄, 가을철에는 전국 유·무명한 산에 꽃구경, 단풍구경, 산책, 등산 등을 위하여 인산인해를 이루는 모습이 종종 TV화면에 비취진다.

한편 아내나 낮익은 이웃집 가정주부에게 나무와 인생과의 관계를 물으면 집안에서 키우고 있는 분재나 꽃꽂이 이야기부터 개인이나 아파트주위의 조경목, 유실수 더 나아가서는 앞산

공원(대구에 있음)에 식재되어 있는 여러가지 나무이야기를 하며 향기로운 냄새의 아름다운 꽃이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 약간의 운치있는 도시인은 봄에는 형형색색의 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지어 그늘을 주며 가을에는 낙엽이 지는 가로수에서 계절의 변화를 읽는다고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산에 가면 약수를 받아마실 수 있고 또한 나무가 많은 곳에 가면 공기가 맑아 울적했던 기분이 상쾌해지고 머리가 깨끗해 진다고 한다.

시골 아주머니는 울창한 나무밑에서 산채, 버섯을 채취한다고 하고 시골할아버님들은 여름에 우물터 옆에 있는 장년의 느티나무가 그늘을 주어 시원하다고 하신다.

이상의 모든 사실은 내용에 있어서는 제각기 다를지라도 인간의 생활에 있어 나무가 베푸는 혜택을 한마디로 정확히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수목이나 산림에 대해 이렇게 응답

이 다양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수목이 인간생활에 있어 여러면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상기의 사항을 정리하여 보면 산림은 우리에게 목재, 수피(樹皮), 나무 열대, 약초, 산나물, 버섯 등과 같은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동시에 식수원의 공급지, 홍수방지, 유해가스의 제거, 소음경감, 방풍(防風)작용 등을 통하여 우리에게 간접적으로도 많은 이익을 준다.

특히 최근에는 인구의 급격한 도시 집중화현상과 산업기술의 급속한 발전등으로 인하여 인구가 적은 농촌지방이나 깊은 산간오지를 제외하고는 오염물질의 확산, 소음 등의 각종 공해(대기, 물, 토양 등)로 대부분의 도시민은 정서불안, 건강의 위협 등에 직면하고 있는데 산림수목은 이들에게 산림욕(山林浴)을 통하여 심신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유지, 승진시켜 준다. 또한 녹색의 풍치림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야영장, 스키, 골프장 등은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위안을 주고, 각종 야생동물들의 서식지인 산림은 사냥장소로도 제공되어 수렵인의 심신단련과 겨울철의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각종 수목은 약리작용(藥利作用)도 많아 질병의 예방 및 치유효과도 크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떡갈나무의 신선한 잎성분 중에는 결핵균, 콜레라, 디프테리아균 등을 단시간에 사멸시켜 버리는 작용이 있다고 하며 소나무류에서도 천

식을 막아주는 살균력이 있다는 것 또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이상 열거한 이외에도 산림수목은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흡착, 정화시켜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를 주는 녹색허파(Green Lung)의 역할을 하고 있는 등 그 혜택은 우리의 기존상상을 넘고 있으며 지금도 이 방면에 대한 연구가 임학 및 환경보호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목 및 산림보호 단체 설립의 필요성과 역할

지금까지는 각종 수목이나 산림이 인간생활에 베풀어주는 혜택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저절로 누려지는 것이 아니고 이들 녹색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세심하게 관리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처해있는 현실은 이와 상반되는 현상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어 뜻있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일례로 근자에 도시의 택지난해소, 각종 위락시설 설치 및 도로건설 등과 같은 각종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각종 공사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도처에서 산림파괴로 이어졌다. 그 결과 해마다 산림면적은 감소하고 울창했던 산림은 흉물스럽게 허리를 잘린채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브라질을 위시한 수개국의 열대강우림지역에서 행해지는 무분별한 수목의 벌채는 각종 생태계의 교란 및 파괴를 가져왔고 또한 지구의 온난화현상에 일조를 기하였

다.

또한 최근에 접한 보고에 의하면 대기중에 메탄이 년 1.7%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하는데 이는 열대림의 남벌로 인하여 흰개미가 급증하여 이들의 체내틈에 서식하는 혐기성 세균의 작용으로 메탄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로 질소산화물이 급속히 확산되어 산림의 황폐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예도 세계각국에서 보고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알바젯나무가 초여름에 조기낙엽하여 그 결과 수목생육을 방해하였는데 원인은 산림근처에 도로포장으로 차량의 왕래가 빈번해져 이들이 내뿜는 배기가스가 잎에 부착되었기 때문이라 한다. 한편 그 이외에 산불의 피해가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특히 봄, 가을에는 연례행사처럼 되어 있고 그 피해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누구나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위에 말한 문제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생각할 때 “인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세심한 주의의 관찰 및 홍보교육등에 의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방제 대책을 세울 수가 있다.

이에 비해 눈에 잘 띄지 않는 곤충, 나무병, 선충이나 각종공해 또는 이들이 복합적

우리나라의 경우, 산림면적은 전국토의 65%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수목은 산지뿐만 아

니라 전국도처에 그 목적에 맞게 식재되어 있어 명실공히 산림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각종연구와 보호 및 방제 사업은 주로 산림청, 임업연구원 및 각도 산림환경연구소의 보호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인원, 장비 및 시설로 각종위해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며 무엇보다도 숙련된 이 분야의 전문가 부족이 가장 애로사항이라 하겠다.

또한, 향후는 국제화시대이기에 외국으로부터 홍수처럼 수입되는 농림수산물에서 코드린나방, 만주애기잎말이나방 및 감귤뿌리선충 등과 같은 각종 병해충의 도입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도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때 이들 “제위해 요인”으로부터 수목 및 산림을 보호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기관의 인력, 장비보강과 함께 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새로운 민간단체의 연구기관설립이 절실한 시기이다. 이에 만시지탄은 있으나 녹색자원인 수목과 산림을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하여 우리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이 자원을 자손만대에 유산으로 남기려는 취지에서 본 수목보호회가 출범한 것을 진심으로 자축하며 금후 전국적인 조직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끝으로 본 연구회의 취지에 호응하는 많은 일반인들의 동참과 협력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